

'14년 중남미 국가별 치안등급 평가 결과

(2014. 3. 27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 평가방법

- 미국 FTI Consulting*은 최근 「'14년 중남미 국가별 치안등급 (2014 Latin America Security Index)」을 발표함.

* 전세계 26개국 지점보유, 4,200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한 컨설팅회사

- 평가항목

- 중앙 및 지방정부 발표 각종 범죄(살인, 강도, 납치, 절도, 마약 거래, 정치 및 노동관계 시위, 폭력 등) 건수 등
- NGO 및 국제기구의 중남미 치안관련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반영

2 평가결과

- 마약과 연계된 조직범죄가 중남미 치안부재의 주요 요인
 - 정치경제 불안으로 야기된 각종 소요 사태 증가 (베네수엘라 등)
 - 각국의 범죄발생 감소노력에 따른 일부 개선(콜롬비아, 브라질 등)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시적 성과창출 필요

<표> 2014년 중남미 치안 등급 평가결과

등급*	국가명	국가수
1등급	-	-
2등급	코스타리카, 칠레, 우루과이	3
3등급	파나마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페루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	6
4등급	니카라과, 볼리비아, 콜롬비아, 브라질, 엘살바도르	5
5등급	멕시코, 아이티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베네수엘라	5
총 계		19개국

* 등급이 높을수록 고위험국

□ 주요 국가별 평가 결과 요약

○ 멕시코 [5등급]

- Pena Nieto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안사정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음. 특히 최근 마약카르텔 두목 Joaquin El Chapo Guzman 체포에 성공했으나 조직간 세력다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, 향후 총체적인 범죄율 감소로 연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○ 베네수엘라 [5등급]

- 높은 물가상승률 및 정치적 불안기중으로 범죄발생 증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함. 정부의 부정부패 만연 및 조직범죄 증가로 중남미 최악의 치안부재 국가로 지목됨.

○ 브라질 [4등급]

- 최근 수년간 리오 지역 내 성공적 범죄율 감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임. 또한 월드컵 및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다양한 치안 확보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임.

○ 콜롬비아 [4등급]

- 정부와 게릴라 그룹간 평화협정이 잘 준수되어 치안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 국경지역 범죄발생율은 최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도시 범죄 발생율은 여전히 높은 편임.